

대학생의 노화불안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한숙정^{1*}, 김효선²

¹삼육대학교 간호학과, ²삼육대학교대학원 간호학과

Influences on the Aging Anxiety of University Students

Suk-Jung Han^{1*}, Hyo-Sun Kim²

¹Dept. of Nursing, Sahmyook University

²Dept. of Nursing, Sahmyook Graduate School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노부모 부양 의식 및 자아존중감이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서울 소재 일개 대학교 간호대학생 239명을 대상으로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설문조사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고, 자료분석은 IBM SPSS 21.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노화불안은 평균 2.94점으로 중간정도 이었으며, 노인에 대한 지식은 평균 18.29점, 노인에 대한 태도는 평균 65.5점, 노부모 부양 의식은 평균 4.05점, 자아존중감은 평균 3.07점이었다. 상관분석결과 노화불안은 노인에 대한 태도, 노부모 부양 의식, 자아존중감과 부적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노인에 대한 지식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노인과 동거경험이 없는 경우,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노화불안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비추어볼 때, 대학생이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갖고 노화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 중 하나는 노인과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influencing aging anxiety in university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239 nursing students from one university in Seoul.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to December in 2014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The average score for aging-anxiety was 2.94, for knowledge about the elderly 18.92, for attitude toward the elderly 65.5, for participants' supporting awareness of old parents 4.05, and for self-esteem 3.07. There were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aging anxiety, attitude toward the elderly, supporting awareness of old parents, and self-esteem. Aging-anxiety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age, gender, living with grandparent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supporting awareness of old parents, and self-esteem. In view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one of the strategic ways to help college students reduce aging anxiety is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activities that they can experience positive relationship with elderly.

Key Words : Anxiety, Attitude, Knowledge, Self-esteem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13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인구 중 12.2%이며, 2030년 24.3%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의 노인부양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2013년 현재 노년부양비는 16.7로 생산가능인구 6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하는 부담을 갖

본 논문은 2015학년도 삼육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Corresponding Author : Suk-Jung Han(Sahmyook Univ.)

Tel: +82-2-3399-1591 email: hansj@syu.ac.kr

Received January 8, 2015

Revised (1st January 23, 2015, 2nd February 2, 2015, 3rd February 9, 2015)

Accepted February 12, 2015

고 있다[1]. 세계에서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행 중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현재 대학생들은 향후 더욱 늘어날 노인세대를 부양하고 책임져야 할 핵심적인 위치에 서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은 노인부양에 있어서 노인보건과 복지의 방향을 결정할 뿐 아니라 사회 통합적 정책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2].

현대사회에서 젊음과 관련된 특성에 높은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어, 노인이 발달적 측면에서 성숙해가면서 자아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인생을 통합하고 완성해가는 노화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아프고, 약하고, 지치고, 신체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은 등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부정적 이미지를 더 크게 부각시킨다[3]. 인간에게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현대인은 노화에 대하여 걱정하고 불안해 할 뿐 아니라 노화를 피하고자 한다[4]. 노화불안이란 노화과정과 관련된 예측 가능한 우려가 나타난 심리적 불안상태이다.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이나 두려움이 복합된 개념으로 노화과정 적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노화불안은 노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추후 노년의 삶에도 중요한 요인인 삶의 방식이나 기회를 선택하는데도 영향을 준다. 노화불안이 낮은 젊은이들은 노화불안이 높은 젊은이들에 비해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노화를 성공적으로 맞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선택한다[6].

태도는 어떤 특정 대상, 사고,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한 싫어함 또는 좋아함을 뜻하는 주관적인 평가반응으로 사람이나 대상의 속성에 대한 긍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인 것까지의 연속선상에 위치한다[7]. 노인에 대한 태도는 가족, 또래집단, 학교, 대중매체 등 사회화를 통한 인지적 과정에서 형성된다[8]. 부양이란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그 때 그 때 필요로 하는 지원을 얻는 과정으로 한 개인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물질적, 정신적, 신체적, 서비스적 도움을 얻는 것이다[9].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과 느낌으로 주로 주변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형성되는데, 구체적으로는 학업능력, 운동능력, 성취, 외모, 사회성 등에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10].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화불안은 성별[11,12], 연령[13,14], 종교[12], 노인과의 동거경험[12,15], 자아존중감[14], 노인에 대한 태도[16], 노인과의 생활경험의 질[12], 노

인에 대한 자원봉사경험[12], 노인에 대한 지식 및 교육 경험[2,17]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불안에 대한 연구의 대상으로는 대학생[12,16], 중년기 성인[11,13,15], 노인[14], 사회복지사[18], 임상간호사[19] 등 다양하였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에 그쳤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 지식 및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 및 자아존중감이 노화불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파악해보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노부모 부양의식, 자아존중감 및 노화불안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노부모 부양의식, 자아존중감 및 노화불안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노부모 부양의식, 자아존중감 및 노화불안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노화불안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일개 대학교의 간호학과 학생 중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자료 하였다. 자료수집은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심의(SYUIRB2014-149)를 통과한 후 2014년 9월부터 12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참여의 자발성, 정보의 비밀유지 등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 여부를 확인하여 서면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연구목적외로만 이용되며 참여를 철회하고 싶은 경우 언제든지 가능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표본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일반적 특성을 포함한 주요변수 13개의 예측변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에서 중간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로 계산했을 때 대상자 수는 189명이었다. 본 논문의 최종본 석에 이용된 대상자수는 239명으로 충분한 수의 대상자가 확보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노화불안

노화불안은 Lasher와 Faulkender[20]의 ‘노화불안척도(Anxiety about Aging Scale, AAS)를 Suh와 Choi[15]가 번안한 총 20개의 문항 Likert 5점 척도이다. 4개의 하위영역 즉 ‘노인에 대한 두려움’(5문항), ‘심리적 불안정’(5문항), ‘외모에 대한 걱정’(5문항), ‘상실의 두려움’(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화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내적일관성은 Cronbach’s alpha=.8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8이었으며, 4가지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노인에 대한 두려움’, .882, ‘심리적 불안감’, .743, ‘외모에 대한 걱정’, .736, ‘상실에 대한 두려움’, .604 이었다.

2.3.2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지식은 대상자가 노인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의미하며 Palmore[21]의 Facts on aging quiz(FAQ)를 Lim[22]이 번안한 것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항별로 ‘정답’은 1점, ‘오답’과 ‘잘모르겠다’는 0점으로 계산하며 총점은 최저 0점에서 최고 25점에 이르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Kuder-Richardson 20(K-R 20)을 사용한 도구의 내적일관성은 .617이었다.

2.3.3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태도는 Han[7]이 개발한 의미분화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인 연령집단에 대한 태도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어떤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기술과 부정적인 기술을 나타내는 반대되는 형용사 20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들은 제시된 20개의 형용사 각각에 대하여 노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총 20개 문항으로 문항별로 최소 1점에서 최고 5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내적일관

성은 Cronbach’s alpha=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51 이었다.

2.3.4 노부모 부양의식

노부모 부양의식(supporting awareness of old parents)은 Kim[9]이 선행연구를 토대로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3가지 하부영역 즉 ‘경제적 부양’(5문항), ‘정서적 부양’(5문항), ‘서비스적 부양’(5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15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내적일관성은 Cronbach’s alpha=.88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94 이었다. 하부영역별로 ‘경제적 부양’, .846, ‘정서적 부양’, .783, ‘신체적 서비스 부양’, .808 이었다.

2.3.5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Rogenberg[23]의 Sef-esteem Inventory를 Jon[24]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10 문항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의 Cronbach’s alpha=.7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45이었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IBM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노부모 부양의식, 자아존중감, 노화불안은 평균과 표준편차 혹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변수들 간에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대상자의 노화불안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08세이었으며, 여학생이 84.1%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학년은 임상실습을 하기 전인 1-2학년을 저학년, 임상실습을 경험한 3-4학년을 고학년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종교가 있는 학생이 52.7%였으며, 도시에서 성장한 학생이 81.6%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현재 노인과 함께 생활하는 학생은 7.9%에 그쳤고

과거에 노인과 함께 생활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51.9%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81.6%는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신이 부양을 하겠다고 응답하였고, 49%가 노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39)

Variables	Categories	n (%) or mean±SD
Age		21.08±2.58
Gender	Men	38 (15.9)
	Women	201 (84.1)
School year	1~2	108 (45.2)
	3~4	131 (54.8)
Religion	Have	126 (52.7)
	Don't have	113 (47.3)
Growth region	City	195 (81.6)
	Country	44 (18.4)
Living with the elderly at present	Yes	19 (7.9)
	No	220 (92.1)
Lived with the elderly in the past	Yes	124 (51.9)
	No	115 (48.1)
Supporting awareness of parents	Yes	195 (81.6)
	No	44 (18.4)
Experience of volunteering for elderly	Yes	117 (49.0)
	No	122 (51.0)

3.2 대상자의 노화불안,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노부모 부양의식, 자아존중감 정도

대상자의 노화불안은 최소 20점부터 최고 90점까지 큰 차이를 보였고, 총점 100점 만점에 평균 58.78±10.14점이었으며, 문항평균 5점 만점에 2.94±0.51점이었다. 노화불안의 4개 하부영역 중 '상실에 대한 두려움'(3.11±0.64),

'외모에 대한 걱정'(3.05±0.75), '노인에 대한 두려움'(2.96±0.73), '심리적 불안정'(2.64±0.62) 순으로 높았다.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은 최소 8점부터 최고 24점이었고, 총점 25점 만점에 평균 18.29±3.17점이었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최소 29점에서 최고 95점이었고, 총점 100점만점에 65.50±8.93점이었으며, 문항평균 5점 만점에 3.27±0.45점이었다.

대상자의 노부모 부양의식은 최소 43점부터 최고 75점이었고, 총점 75점 만점에 60.69±7.39점이었으며, 문항평균 5점 만점에 4.05±0.49점이었다. 노부모 부양의식의 3개 하부 영역 중 '경제적 부양'의 문항평균(4.30±0.52)이 '정서적 부양'(3.81±0.63)과 '신체적 서비스 부양'(4.03±0.60)보다 높았다. 자아존중감은 최소 20점부터 최고 40점이었고, 총점 40점 만점에 평균 30.70±4.32점이었으며, 문항평균 4점 만점에 3.07±0.43점이었대[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화불안,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노부모 부양의식 및 자아존중감 차이에 대한 비교

대상자의 노화불안에 대한 문항평균은 5점 만점에 2.94±0.51점이었고, 성별, 종교유무, 과거 노인과 동거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노화불안은 남성보다 여성이($t=-3.814, p<.001$), 종교가 있는 사람보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t=-3.704, p<.001$), 과거 노인과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 보다 없는 경우에($t=-2.450, p=.015$) 유의하게 높았다. 그 외 대학 수업연한, 성장지역, 현재 노인과 동거유무,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 유무, 노인 대상 자원봉

[Table 2] Subjects' Level of Aging anxiety, Knowledge, Attitude, Supporting awareness, Self-esteem (N=239)

Variables (item numbers)	Minimum	Maximum	Mean±SD	Item Mean
Aging anxiety (20)	20	90	58.78±10.14	2.94±0.51
Fear of old people (5)	5	25	14.82±3.66	2.96±0.73
Psychological concerns(5)	5	25	13.18±3.09	2.64±0.62
Concern about appearance(5)	5	24	15.26±3.77	3.05±0.75
Fear of loss (5)	5	23	15.53±3.22	3.11±0.64
Knowledge about the elderly (25)	8	24	18.29±3.17	-
Attitude toward the elderly (20)	29	95	65.50±8.93	3.27±0.45
Supporting awareness of old parents (15)	43	75	60.69±7.39	4.05±0.49
Economic supporting (5)	14	25	21.51±2.61	4.30±0.52
Emotional supporting (5)	12	25	19.05±3.15	3.81±0.63
Physical service supporting (5)	13	25	20.13±2.99	4.03±0.60
Self-esteem (10)	20	40	30.70±4.32	3.07±0.43

사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은 20문항의 20점 만점에 평균 18.29±3.17점이었으며, 고학년이($t=-9.049, p<.001$)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의 요인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문항평균이 5점 만점에 3.27±0.45점이었고, 저학년이($t=2.988, p=.003$)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노인 부양의식의 문항평균은 5점 만점에 4.05±0.49점이었고, 저학년이($t=2.974, p=.003$), 종교가 있는 경우($t=1.993, p=.047$), 성장성장한 지역이 도시가 아닌 경우($t=-2.060, p=.041$), 현재 노인과 동거하는 경우($t=-2.397, p=.023$),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있는 경우($t=2.992, p=.003$), 노인 대상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경우($t=2.228, p=.027$)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의 자존감은 총점에 대한 문항평균이 5점 만점에

3.07±0.43점이었고,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t=2.797, p=.006$)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그 외의 다른 요인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Table 3].

3.4 대상자의 노화불안,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노부모 부양의식,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r=-.479, p<.001$), '노부모 부양의식'이 적을수록($r=-.337, p<.001$),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r=-.413, p<.001$) 노화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노화불안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노인에 대한 태도'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노인에 대한 지식'은 노화불안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반면 '노인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노부모 부양의식'($r=-.184, p=.004$)은 낮아서, 약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

[Table 3] Differences of Aging anxiety, Knowledge, Attitude, Supporting awareness, Self-esteem of the Subjects (N=239)

Variables	Categories	Aging anxiety	Knowledge about the elderly	Attitude toward the elderly	Supporting awareness of old parents	Self-esteem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Gender	Men	2.66±0.46	18.34±2.96	3.36±0.39	4.03±0.49	3.25±0.41
	Women	2.99±0.50	18.28±3.21	3.26±0.46	4.05±0.49	3.04±0.43
	t (p)	-3.814(<.001)	0.113(.910)	0.446(.656)	-0.197(.844)	2.797(.006)
School year	1~2	2.90±0.45	16.49±3.10	3.37±0.47	4.15±0.50	3.09±0.44
	3~4	2.97±0.55	19.77±2.37	3.20±0.41	3.96±0.48	3.06±0.43
	t (p)	-0.974(.331)	-9.049(<.001)	2.988(.003)	2.974(.003)	0.514(.608)
Religion	Have	2.83±0.48	18.37±3.06	3.30±0.47	4.11±0.49	3.10±0.43
	Don't have	3.06±0.51	18.20±3.30	3.24±0.42	3.98±0.49	3.04±0.44
	t (p)	-3.704(<.001)	0.393(.695)	1.093(.276)	1.993(.047)	1.154(.250)
Growth region	City	2.96±0.51	18.29±3.29	3.26±0.44	4.02±0.49	3.06±0.44
	Country	2.85±0.50	18.27±2.61	3.34±0.48	4.18±0.50	3.14±0.39
	t (p)	1.259(.209)	0.043(.966)	-1.086(.278)	-2.060(.041)	-1.125(.262)
Living with the elderly at present	Yes	2.76±0.39	18.53±3.12	3.45±0.48	3.88±0.29	3.01±0.42
	No	2.95±0.51	18.27±3.18	3.26±0.44	4.06±0.50	3.08±0.43
	t (p)	-1.605(.110)	0.340(.734)	1.791(.075)	-2.397(.023)	-0.684(.495)
Lived with the elderly in the past	Yes	2.86±0.52	18.50±3.05	3.29±0.43	4.06±0.45	3.04±0.43
	No	3.02±0.48	18.06±3.29	3.26±0.46	4.03±0.54	3.10±0.43
	t (p)	-2.450(.015)	1.071(.285)	0.627(.532)	0.584(.560)	-0.965(.336)
Supporting awareness of parents	Yes	2.93±0.49	18.14±3.14	3.31±0.45	4.09±0.47	3.05±0.43
	No	3.00±0.58	18.95±3.23	3.10±0.41	3.85±0.55	3.16±0.43
	t (p)	-0.897(.370)	-1.548(.123)	2.962(.003)	2.992(.003)	-1.554(.122)
Experience of volunteering for elderly	Yes	2.90±0.50	17.97±2.98	3.30±0.48	4.12±0.48	3.10±0.43
	No	2.97±0.51	18.60±3.32	3.25±0.41	3.98±0.49	3.04±0.44
	t (p)	-1.027(.305)	-1.547(.123)	0.938(.349)	2.228(.027)	1.012(.313)

였다. ‘노부모 부양의식’($r=.352, p<.001$)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r=.244, p<.001$)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노부모 부양의식($r=.145, p=.025$)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N=239)

Variables	1	2	3	4
	r (p)	r (p)	r (p)	r (p)
1. Aging anxiety	1			
2. Knowledge about the elderly	.071 (.277)	1		
3. Attitude toward the elderly	-.479 (<.001)	-.043 (.511)	1	
4. Supporting awareness of old parents	-.337 (<.001)	-.184 (.004)	.352 (<.001)	1
5. Self-esteem	-.413 (<.001)	.063 (.329)	.244 (<.001)	.145 (.025)

3.5 대상자의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은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였고, Durbin-Watson 지수가 1.875이므로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이다.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은 VIF 지수를 이용하였고, VIF 지수가 1.049 ~ 1.230 으로 10 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데이터는 회귀분석을 실시

하기에 적합하다.

이상값을 검토하기 위해 표준화 잔차와 표준화 DFFIT 값을 검토한 결과, 표준화 잔차는 기준값인 3보다 큰 데이터 3개(3.71732 ~ 3.57138) 있었고, DFFIT 값은 기준값이 절대값 2보다 모두 작았다. 잔차의 등분산성에 대한 검정은 ZRESIDID-ZPRED 그래프를 살펴보고, 표준화된 잔차의 등분산 그래프가 ±3 이내에서 불규칙적으로 나타났다. Kolmogorov-Smirnov 검정($Z=.557, p=.916$)에 의한 정규성검정은 $p>.10$ 으로 정규성과 등분산 가정을 모두 만족하므로 본 데이터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 위의 DFFIT 값이 3 이상인 3개의 데이터를 삭제하고 236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다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B=3.089, p=.027$)인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B=-.478, p=.021$), 노인과 함께 동거한 경험이 없는 경우($B=-2.674, p=.007$), 노인에 대한 태도점수가 낮을수록($B=-.295, p<.001$), 노인부양의식이 낮을수록($B=-.242, p=.001$),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B=-.765, p<.001$) 노화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노인동거경험, 태도, 지식, 노인부양인식, 자아존중감이 노화불안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43.4%이다. 독립변수 중 자아존중감($\beta=-.332$)이 노화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노인에 대한 태도($\beta=-.330$), 노인부양의식($\beta=-.182$)의 순으로 노화불안에 영향을 주었다[Table 5].

[Table 5]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factors influencing aging anxiety (N=236)

Variables	B	SE	β	t	p	VIF
(constant)	131.844	8.114		16.249	<.001	
Age	-.478	.206	-.126	-2.319	.021	1.223
Gender (ref.: men)	3.089	1.389	.116	2.224	.027	1.128
Religion	-1.923	1.006	-.098	-1.912	.057	1.091
Living with grandparents (ref: no)	-2.674	.985	-.136	-2.715	.007	1.049
Knowledge about the elderly	.308	.165	.100	1.866	.063	1.186
Attitude toward the elderly	-.295	.048	-.330	-6.190	<.001	1.179
Supporting awareness of old parents	-.242	.072	-.182	-3.345	.001	1.230
Self-esteem	-.765	.120	-.332	-6.385	<.001	1.122

$R^2 = .453, \text{adj } R^2 = .434, F=23.50 (p<.001)$

4. 논 의

본 연구는 급격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에 다다른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학적 환경 속에서 앞으로 노부모세대를 부양해야할 책임이 있는 젊은 세대의 노화불안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대상자의 노화불안 정도는 문항평균 5점 만점에 2.94점으로 중간점수보다 약간 낮았으나, 하위영역 중 '상실에 대한 불안'은 3.11점, '외모에 대한 걱정'은 3.05점으로 전체 평균점수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 345명을 대상으로 한 Kim[16]의 연구에서 문항평균이 2.92점으로 유사하였으나 하위영역 중에서는 '노인에 대한 두려움'이 문항평균 3.32점으로 가장 높았고, '상실에 대한 불안'은 2.86점으로 본 연구보다 낮았다. 또한 대학생 840명을 대상으로 한 Kim[12]의 연구에서도 노화불안의 문항평균 점수는 2.84점이었고, 하위영역 중 '상실에 대한 불안'이 2.98점으로 가장 높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40~50대 중년 남녀를 대상으로 한 Suh와 Choi[15]의 연구에서 총 평균 59.94점, 20~50대 간호사(20대가 94%) 170명을 대상으로 한 Jeon[19]의 연구에서 총 평균 59.93점으로 본 연구의 노화불안 전체 평균 58.78점 보다 높았다. 20~40대 사회복지사(평균연령 30.34세) 136명을 대상으로 한 Choi[18]의 연구에서 문항평균은 3.13점이었고, 하위영역 중 '심리적 불안감'이 3.45점으로 다른 군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20~50대 성인남성(평균연령 38.06세) 315명을 대상으로 한 Ki[13]의 연구에서 문항평균 3.05점이었고, 하부영역 중 '심리적 불안정'이 3.19점으로 가장 높았다. 65세이상 노인 466명을 대상으로 한 Kim, Kim, Kim과 Lee[22]의 연구에서는 문항평균 2.77점이었고, 하위영역 중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3.34점으로 타 영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다양한 연령층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연령이 청년에서 중년으로 증가하면서 노화불안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정작 노인의 노화불안은 가장 낮았다. 노화불안이 자신의 개별적인 노화과정과 관련된 예측 가능한 걱정이 불안상태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미 노인이 된 시점에서는 노화가 불안하기 보다는 당연한 일상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노화불안은 여성이, 종교가 없고, 과거 노인과 동거경험이 없는 대학생의 경우가 유의하게 높아 선행연구[12]와 일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저학년과 고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고, 노인대

상 자원봉사경험이 없는 학생이 있는 학생에 비해 노화불안이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과는 달리, Kim[12]의 연구에서는 노인관련 교육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의 노화불안 유의하게 높았으며, 자원봉사경험이 없는 학생이 노화불안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Kim[12]은 5개 대학에서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 84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 비해 더 큰 차이를 보였을 것으로 보인다. Lee, Ahn과 Yune[17]의 연구에서 노인과 동거경험이 없는 경우, 노인관련 교육 경험이 없는 그룹에서 노화불안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Choi[18]의 연구에서 미혼인 경우 기혼자에 비해 노화불안이 유의하게 높았고, Ki[13]의 연구에서 학력이 고졸인 경우 전문대 및 대졸, 대학원이상인 대상자에 비해 노화불안이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Suh와 Choi[15]의 연구에서 40대에 비해 50대가 종교가 없는 사람의 경우, 고졸학력인 경우, 월수입 및 경제적 상태가 낮은 경우, 주관적 건강지각을 바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경우, 노인과 살아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 유의하게 높았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 및 직업과 관계없이 여성과 종교가 없는 사람이 노화불안이 높은 경향이 있었고, 학력과 경제적 수준은 관련된 변수이므로 둘 다 낮은 경우에 노화불안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은 25점 만점에평균 18.29점이었고, 평균 정답률은 73.16%로 나타났다. 여대생 379명을 대상으로 한 Kang, Jung과 Kim[2]의 연구에서 25점 만점에 평균 10.21점으로 평균 정답률 40.9%이었으며, 2,814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Park[25]의 연구에서도 25점 만점에 평균 10.63점에 정답률 42.5%로 본 연구 대상자보다 현저히 지식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일반 대학생의 경우 노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은 고학년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대학생 344명을 대상으로 한 Lee, Ahn과 Yune[17]의 연구에서도 노인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 혹은 과거에 노인과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 노인에 대한 지식이 동거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높은 경향은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Lee, Ahn과 Yune[17]의 연구에서는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 비해 대상자 수가 많고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상자간에 다양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65.50점이었으며, 이것은 대학생 397명을 대상으로 한 Lee[26]의 연구에서 64.8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하게 중립적인 태도 점수의 범위인 50~70점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대학생 385명을 대상으로 한 Yang[27]의 연구에서 문항평균 3.06점, Park[25]의 연구에서 3.08점, Choi[18]의 연구에서 3.18점으로 본 연구의 문항평균 3.27점 보다 약간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모두 3점 범위의 중립적인 태도 점수 범위에 있어 큰 차이가 없었다. Han[28]은 초등학교 2학년생부터 4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691명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였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 73.55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등이상의 경우 62.03~62.9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를 지나면 대부분 중립적인 태도 점수 범위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 다양한 연구가 있으나 노인에 대한 태도 도구문항이 6점 혹은 7점 척도로 사용한 경우가 다수 있어 직접 비교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관련 산업이 발달하고 노인 이용시설 및 노인대상서비스가 급격히 확대되며[29] 노인들을 위한 혹은 노인들과 더불어 일하는 직업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본 연구대상인 간호대학생은 임상현장에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노인들을 돌보는 전문직에 종사할 예비간호사로서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지식 및 긍정적인 태도는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들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할 수 있는 교육이나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노부모 부양의식은 75점 만점에 평균 60.69점, 문항평균 4.05점이었으며, Park[25]의 연구에서 문항 평균 3.68점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고, Kim[9]의 연구에서 문항평균 4.04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하였으며, Yang[27]의 연구에서 4.11점으로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다. 3개의 연구 모두 부양의식의 하부영역에서 경제적 부양, 서비스적 부양, 정서적 부양 순으로 부양의식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대학생들은 노부모 혹은 노인들에게 대화를 하거나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일을 처

리하거나 잔소리에 공손히 대답하고, 집안 대소사를 상의하고 노부모를 집안의 어른이라고 생각을 갖게 해드리는데 등의 정서적인 부양의식은 낮고,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고, 병원비, 여행비, 축의금,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경제적 부양의식이 높은 것을 공통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는 대가족 제도 하에 부모를 모시는 전통적인 부양의식이 핵가족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대사회의 젊은 세대들의 의식변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인다.

자아존중감은 40점 만점에 평균 30.70점으로 대학생 301명을 대상으로 한 Kim[30]의 연구에서 평균 29.50점으로 유사하였고, 대학생 2007명을 대상으로 한 Hong[31]의 연구에서 3.67점으로 본 연구의 3.07점 보다 높았고 Cho[32]의 연구에서는 24.04점으로 본 연구보다 낮았다. Chung[33]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점수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누어서 노인부양의식을 비교해 본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부양의식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Kim과 Lee[11]의 연구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자아존중감이 높아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화불안은 노인에 대한 태도, 노부모 부양의식,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Kim[16]의 연구에서 노화불안과 노인에 대한 부정적태도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노인에 대한 지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34]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또한 노화에 대한 지식은 노화불안의 하위영역과 어떠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Lee, Ahn과 Yune[17]의 연구에서는 노화에 관한 지식이 많을수록 노화불안이 유의하게 적어 본 연구와 달랐다. 노인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어서 더 불안을 느낄 수도 있고, 잘 몰라서 막연히 불안을 느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 않고 대상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된다. Kim과 Lee[11]의 연구에서 노화불안과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와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즉 중년성인의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노화불안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다. 즉 자신을 가치있게 여기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중년기 성인일수록 노화불안도 높게 나타난 것이었다. 그 외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지식과 노인에 대한 태도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는 선행연구[2,16,25]에서도 유의하지 않아 본 연구 결

과를 지지하였으나, Kang, Jung과 Kim[2]의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에 대한 지식과 노화불안과의 관계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된다. 노인에 대한 많은 지식이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나 노화불안에 대한 영향 유무는 대상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부양의식이 유의하게 높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는데, Park[25]의 연구에서도 지식이 높을수록 부양의식의 모든 하부영역에서 정적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Yang[27]의 연구에서도 노화지식이 높고,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인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또한 노화과정에 대한 교육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봉사기회의 확대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노화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연령, 성별, 노인동거경험,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부양의식, 자아존중감이었다. 65세이상 노인 466명을 대상으로 한 Kim, Kim, Kim과 Lee[14]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노화불안에 유의한 영향($\beta = -.275,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와 노화불안 사이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면서 노화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16]의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노화불안에 유의한 영향($\beta = .188, p < .001$)을 미쳤다. Kim[12]의 연구에서는 노인대상자원봉사 경험 유무($\beta = .109, p < .001$), 성별($\beta = -.114, p < .001$), 노인과 생활경험의 질($\beta = -.347, p < .001$) 등이 유의하게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즉 노인대상자원봉사 경험이 없는 경우, 여성이 노인과 생활경험의 질이 나쁠수록 노화불안이 높아졌다.

본 연구결과를 비추어볼 때, 대학생이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갖고 노화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 중 하나는 노인과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화불안에 대한 연구가 소수에 그쳐 문헌을 통해 비교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가 일개대학의 단일학과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전체 대학생에게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향후 보다 폭넓고 다양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노화불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

하여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추가로 반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노화불안 도구 또한 국내에 맞게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연구결과가 일치되지 않는 요인들에 대한 검증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Statistical Report on the Aged", 2013. <http://kostat.go.kr>.
- [2] J. S. Kang, D. Y. Jung, Y. Y. Kim, "Women University students' supporting awarenes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9, 3, pp.851-865, 2009.
- [3] S. Koukoulis, V. Pattakou-Parasyri, A. E. Kalaitzaki. "Self-reported aging anxiety in Greek students,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community residents: A comparative study", *The Gerontologist*, Vol. 54, 2, pp. 201-210, 2014. DOI: <http://dx.doi.org/10.1093/geront/gnt036>
- [4] H. G. Shin, "Effects of middle-aged Korean's aging anxiety factors on ageism", *Korean Society of Welfare for the Aged*, Vol. 55, pp.33-64, 2012.
- [5] L. A. Harris, S. M. Clancy Dollinger, "Individual differences in personality traits and anxiety about ag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34, pp.187-194, 2003. DOI: [http://dx.doi.org/10.1016/S0191-8869\(02\)00019-3](http://dx.doi.org/10.1016/S0191-8869(02)00019-3)
- [6] S. M. Neikrug, "Worrying about a frightening old age", *Aging & Mental Health*, Vol. 7, 5, pp.326-333, 2003. DOI: <http://dx.doi.org/10.1080/1360786031000150702>
- [7] J. R. Han, "Development of the scale for attitudes toward age group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4, 3, pp.197-210, 2004.
- [8] G. Y. Lee, "A study on the strategies in planning and implementing intergenerational program through comparative study of attitudes toward older persons among generations", *Korean Society of Welfare for the Aged*, Vol. 26, pp.143-164, 2004.
- [9] M. J. Kim, "A study on the undergraduates' awareness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Haany University, Kyoungbuk, 2009.
- [10] W. Y. Shim, "Medication effects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ppearance satisfaction and happi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 25, 4, pp.31-51, 2012.

- [11] S. Y. Kim, J. I. Lee, "A study on aging anxiety,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middle-aged peop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Vol. 14, 1, pp.103-109, 2007.
- [12] W. Kim, "A study on anxiety about aging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Vol. 26, pp.27-56, 2011.
- [13] N. J. Ki, "Male adults' death and aging anx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eo University, Seosan, 2012.
- [14] J. H. Kim, W. Kim, S. H. Kim, K. J. Lee,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to the elderly group on their anxiety over aging and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64, pp.323-343, 2014.
- [15] S. R. Suh, H. J. Choi, "Aging anxiety and related factors of middle-aged adul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25, 4, pp.464-472, 2013.
DOI: <http://dx.doi.org/10.7475/kjan.2013.25.4.464>
- [16] M. H. Kim, "The influence of elderly contact, attitudes toward elderly and death anxiety on aging anxiet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Vol. 19, 3, pp.435-456, 2013.
- [17] J. H. Lee, Y. S. Ahn, S. J. Yune, "The effect of living experiences with the elderly and leaning about the elderly to knowledge of aging process and anxiety about aging process in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7, 2, pp.345-355, 2007.
- [18] H. J. Choi, "The attitude toward elders and anxiety about aging of social workers: Focusing on the social workers in Seoul",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eo University, Chungnam, 2011.
- [19] M. K. Jeon, "Clinical nurses' aging anxiety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2013.
- [20] K. P. Lasher, P. J. Faulkender, "Measurement of aging anxiety: Development of anxiety about aging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 37, 4, pp.247-259, 1993.
DOI: <http://dx.doi.org/10.2190/1U69-9AU2-V6LH-9Y1L>
- [21] E. B. Palmore, "The facts on aging quiz: A review of findings", *The Gerontologist*, Vol. 20, 6, pp.669-672, 1980.
DOI: <http://dx.doi.org/10.1093/geront/20.6.669>
- [22] Y. S. Lim,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of a General Hospit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Kwangju, 2002.
- [23]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NJ: Princeton, 1965.
- [24] B. J. Jon,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Vol. 11, 1, pp.107-130, 1974.
- [25] M. G. Park, "Effects of women's colleg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elderlies on consciousness about supporting the ag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Busan, 2007.
- [26] S. S. Lee, "The effects of undergraduate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d aging on grandmother-grandchild intim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National Suncheon University, Suncheon, 2007.
- [27] Y. K. Yang, "A study on aging knowledge, attitudes and awareness about supporting the aged in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19, 4, pp.498-507,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4.498>
- [28] J. R. Han, "Comparative study on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mong age group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Education*, Vol. 1, 1, pp.61-84, 2008.
- [29] Y. H. Kwon, H. Y. Lee, S. S. Hwang, "A study on the knowledge, attitude and nursing practice of the nurses-towards the elderly in geriatric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11, pp. 5785-5791,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11.5785>
- [30] C. G. Kim, "Effects of perceived death and self-esteem on meaning in life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27, 3, pp.539-550, 2013.
DOI: <http://dx.doi.org/10.5932/JKPHN.2013.27.3.539>
- [31] S. R. Ho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n altruism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 14, 4, pp.71-92, 2012.
- [32] H. Y. Cho, "Effect of simulation-based core skill program(SCSP) on clinical knowledge, problem solving process and self-esteem in health-related department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10, pp. 6126-6133, 2014.
<http://dx.doi.org/10.5762/KAIS.2014.15.10.6126>
- [33] C. S. Chung,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o college student's awareness of elderly caregiv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egu Haany University, Gyeongbuk, 2009.
- [34] J. W. Han, "Development of daycare center for senior users as community-cohesive facil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3, pp. 1489-1495,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3.1489>

한 숙 정(Suk-Jung Han)

[정회원]



- 1992년 8월 : 고려대학교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3년 2월 : 가톨릭대학교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1988년 3월 ~ 1998년 2월 : 인제대학교부속서울백병원 간호사
- 1999년 9월 ~ 현재 :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노인보건, 가정간호, 건강증진

김 효 선(Hyo-Sun Kim)

[정회원]



- 2013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과정)
- 2004년 3월 ~ 현재 : 삼육서울병원 간호사

<관심분야>

환자안전, QI